



수리온, 초도비행 통해 개발성공 자신했!

한국형기동헬기(Korean Utility Helicopter) 수리온이 비행 모습을 일반에 최초 공개했다. 뿐만 아니라 시험 개발기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뛰어난 비행성을 과시했다. 지난 6월 22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에서 진행된 '수리온 초도비행성공 기념행사'를 통해 현재까지의 수리온 개발 경과와 향후 발전방향을 전망해 본다.

수리온, 하늘을 날다!

한국형기동헬기, 일명 KUH(Korean Utility Helicopter) 수리온이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지난 6월 22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에서 진행된 한국형기동헬기 수리온의 초도비행 기념식을 통해 그 멋진 모습을 일반에 공개한 것. 이날 행사는 변무근 방위사업청장, 조석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국방부 전력자원실장 등 국방부,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 개발주관기관(KAI, 국과연, 항우연) 등 민·관·군 및 산·학·연 주요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행사장 내 계류장 및 상공



에서 펼쳐진 시범비행을 통해 수리온은 제자리비행을 시작으로 급상승/선회비행, S자 비행, 급강하 및 가속비행 등 고난도의 다양한 기동을 선보였다. 이 자리에서 수리온의 시범비행을 관람한 주요 내외의 귀빈들은 첫 번째 처녀비행 성공이후 불과 3개월 여 만에 시제기라고는 믿기 어려운 수준의 놀라운 기동능력을 선보인 수리온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변무근 방위사업청장(왼쪽 5번째), 배경현 육군항공작전사령관(왼쪽 첫 번째), 김홍경 KAI 대표이사(왼쪽 8번째) 등 주요 참석자들이 수리온의 성공적 개발원로를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수리온, 국내 항공산업의 새로운 이정표

이번 행사를 통해 뛰어난 비행성능을 과시한 수리온은 올해 9월 말까지 초도비행시험을 완료하고 10월 말부터는 초도양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2012년 3월까지 후속비행시험을 실시하여 동년 6월까지 개발사업 완료 및 후속양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은 현재 군이 운용하고 있는 UH-1H와 UH-60 헬기의 중간 크기로 1개 분대의 중무장 병력이 탑승하여 최대 259.28km/h의 속도로 2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으며 분당 152.4m 이상의 속도로 상승할 수 있다. 특히 수리온은 최첨단 4축 자동비행장치, 디지털화된 조종계통과 자동 방어체계 등 국내 최신 항공기술이 집약된 결정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반도, 산악지형과



기상을 고려하여 설계된 만큼 향후 실전배치를 통해 우리 군의 효율적인 공중강습 작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리온, 개발 성공 가능성

향후 회전익 항공기에 대한 국내 수요는 대부분 수리온으로 충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수요처인 육군 외에도 현재 해병 공지작전을 위한 해군 및 해병대용 수리온이 새롭게 제안되고 있으며 다양한 파생형 개발을 통해 최근 교체시기가 도래한 소방·경찰·산림청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용 헬기로 활용될 수 있다. 관건은 해외수출 가능성. 물론 해외수출을 위한 준비도 철저히 진행되고 있다. 수리온은 개발 초기단계부터 수출 및 민수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국제인증 등 고려하여 군용헬기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표준 민수 규격 요구사항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다. 정부부처 간 업무 협의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현재 수리온 개발과정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국내 헬기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해외 민수시장 진출을 위해 “민수헬기 연구기획사업(2009.3~2010.6)”을 수행중이다. 향후 연구기획 결과 및 한국형 공격헬기(KAH) 탐색개발 결과를 토대로 수리온 파생형 및 민수용 모델의 경제성을 검토하여 개발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6

수리온 초도비행 기념행사

2010. 6. 2 (화)

